



3면

전북도 태풍 '카눈' 대비태세 점검

전주매일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음 6월 24일) 제33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해 진여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북에 체류하고 있는 10개국 잼버리 대원들이 9일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추억을 만들고 있다.

10개국 잼버리 대원들 전북서 알찬 일정 소화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 ·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서 활동 이어가
전북 태풍 영향권 진입 따라 오늘 도내 각 시·군 제공 행사 참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해 진여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북에 체류하고 있는 10개국 잼버리 대원 5,720여명이 도내 14개 시·군에서 알찬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잼버리 마지막 날까지 전라북도에서 함께 하기로 한 잼버리 스카우트 5,720여명을 위해 각 시·군별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과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과 영산테마파크 일원에서 포르투갈, 방글라데시, 이집트, 에콰도르 등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 다양한 잼버리 활동이 이어졌다.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는 바늘 지그재그, 그물 오르기 등 숲 바늘 놀이와 잼버리 보드게임, 친환경 캠핑용품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만끽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는 견학 및 VR체험을 하며 에너지의 원리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부안 새만금척박물관과 새만금 홍보관에서는 홍보영상 시청과 설명을 들은 뒤 자유관람했다.

또 영산테마파크에서는 부호와 씨름, 강강수월래 등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과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고사포해수욕장과 숙소인 전북대, 원광대에서 특별 버스킹 공연을 각각 진행해 잼버리 대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호원대에서도 K-푸드, 뷰티 등 체험과 K-팝(POP), 사물놀이 공연관람 등 전북의 전통과 문화의 우수성을 대원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연출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9일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을 찾아 잼버리 대원들을 격려하며 한데 아우러져 체험활동을 펼치는 등 추억살기를 도왔다. 김 지사는 대원들에게 "도와 도내 시·군은 전북을 방문한 세계 청소년들이 잼버리 대회의 아쉬움 보다는 각국의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연계프로그램과 사후 관광프로그램도 흥미진진하게 구성돼 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

면 또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0일에는 전북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진입함에 따라 각 숙소가 위치한 각 시·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주시는 국립무형문화유산원 공연과 한국전통문화 체험, 익산에서는 익산시는 관광명소가 된 교도소세트장과 보석박물관 등 지역 투어, 군산은 근대역사거리 및 금강마래체험관, 남원은 오케스트라 공연과 관소리 공연, 지리산 생태관광, 허브원 체험, 김제는 금산사, 벽골제, 스마트 팜 혁신밸리 체험이 이뤄진다.

완주는 대승한마을, 현대자동차 견학 등, 진안은 마이산, 족욕체험, 장수는 승마레저체험, 와룡자연휴양림 숲 체험, 무주는 태권도 체험, 임실은 119 안전체험관 체험 등, 순창은 발효테마파크 관람 및 고추장 요리체험, 고창은 고인돌 박물관과 상하농원 체험, 부안은 청자박물관 및 김치 체험관 등 시군별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재훈 기자

강현 경제 구현·동반성장 '한마음 한 뜻'

전주시·이마트 전주점
시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지역상생 협력 발전 협약

소상공인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9일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학목 (주)이마트 전주점 지점장, 유장명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심성욱 전주시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상생 협력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전주시와 대형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현경제 전주' 구현과 이를 뒷받침할 동반성장을 이뤄내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학목 (주)이마트 전주점 지점장, 유장명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심성욱 전주시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상생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와 대형유통업체인 (주)이마트,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상생협약을 토대로 함께 성장해가는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주)이마트 전주점은 상생협력사업의 첫걸음으로 지역 소상공인 자녀를 위한 '전주 희망드림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산품 매입 판매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역사회 이익환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지역경제의 거대한 축인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기로 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상생협약은 전주시와 (주)이마트 전주점,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해 지역 상생협력 실천 의지를 다졌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내 모든 유통업체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첫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복기 기자

공립 유·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사전 예고

도교육청, 유·초 77명 · 중등 340명 선발 예정
응시원서 접수는 각각 10월 2~6일 · 16~20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교사 신규임용시험 사전 예고를 홈페이지(www.jte.gokr)에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발 분야별 예정인원은 유·초등교사의 경우 유치원 18명(장애 1명), 초등 41명(장애 3명), 특수유치원 5명(장애 1명), 특수초등 13명(장애 1명) 등 총 77명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선발인원 79명보다 2명 감소한 것이다. 또 중등교사는 국어 15명, 영어 21명, 수학 15명, 체육 23명, 특수(중등) 12명, 보건 32명, 영양 22명, 전문상담 42명 등 31개 과목에 340명을 선발할 예

정(장애인 구분 모집 인원 포함)으로, 전년도 최종 선발인원 328명보다 12명 증가했다. 이는 각 선발 분야별로 정원 증감 요인과 퇴직, 휴·복직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후 교육과정 변동 등으로 실제 선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선발인원은 유·초등은 9월 13일, 중등은 10월 4일 각각 공고되는 2024학년도 유·초등 및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보건교사의 경우 유치원(7명), 초등(13명), 중등(12명)으로 구분 선발(장애인 구분 모집 인원 포함)하며, 최종 합격

자는 각각 구분된 학교급(유치원, 초등, 중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중등교사 체육 실기평가 종목 변경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응시자들은 착오가 없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응시원서 접수는 유·초등은 10월 2~6일, 중등은 10월 16~20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mit.jte.gokr)에서 이뤄지며, 제차 시험은 유·초등은 11월 11일, 중등은 11월 25일 치러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www.jte.gokr) '교육소식-일일사항-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제28회 필봉마로 조추제 '위대한 유산'

2023. 08. 17(목) - 08. 20(일)
임실 필봉문화촌(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주최·주관: 임실 필봉농악보존회

후원: 문화재청,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문화재단, 원광디지털대학교, 사)전통예술원 두레, K water, 섬진강댐지사